

“중국은 탈북민 2,600명에 대한 복송을 중단하라”

워싱턴 D.C. 뉴욕 중국대사관 및 유엔 본부 앞, 강제복송반대 집회

중국 정부에 의해 구금 중인 탈북민 2600여 명의 강제복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24일 낮 맨하탄 중국 대사관 앞과 유엔 본부 앞에서 연달아 개최됐다.

미국 내 시민단체들과 탈북민들이 연합해 결성한 ‘2600명 탈북민강제복송반대 미국 시민 연합(U.S.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the Forcible Repatriation of 2600 North Korean Refugees)’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는 팬데믹 이후 북중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강제송환 위기를 맞은 중국 내 2,600명의 구금 탈북민들이 처한 위기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도 대거 참석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1982년 ‘난민 지위에 관한 UN협약’에 가입했지만 현재까지 탈북민에게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UN 난민 지위를 부여한 적이 없다”면서 “중국 정부는 난민 보호 의무 준수를 명시한 UN 난민 협약에 따라 2600명의 탈북민들을 모두 한국이나 안전한 제 3국으로 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에 구금돼 있는 2600명의 탈북민의 강제복송을 반대하는 집회가 24일 유엔 본부 앞과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개최됐다. 유엔 본부 앞에서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는 참가자들. ©기독일보

특히 이들은 강제 복송시 당할 수 있는 탈북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한 고문 및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임신부의 경우 강제 낙태를 당하게 된다는 수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있었다”면서 “고문 후에도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굶주림과 질병에 의해 고통을 당하게 된다. 특히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경우 성경을 소유했다는 이유 혹은 간첩 혐의로 기소돼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앞두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 등의 가혹한 인권학대를 전 세계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중국 내 2600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복송되지 않고 유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탈북민강제송환반대한국시민연합 대표로 집회에 참석한 이용희 교수는 “지난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미국과 유럽 등이 보이콧을 했듯이, 중국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제여론을 주시하고 있는 이때에 전 세계가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맨하탄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대사관측에 시민단체의 성명을 전달하려 했으나 서면 전달을 거부당했다. 이후 유엔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많은 외교관들과 시민들이 피켓 문구를 유심히 살피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앞서 23일은 워싱턴 DC 중국대사관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미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톱 랜토스 인권위원회’와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참석해 특별 발언을 했다.

스미스 의원은 “오늘 우리는 중국 대사관과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UN 난민 협약에 동의했고 이제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 북한의 탈북민 송환을 요청한다 해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당신이 국제 협약을 준수하는 지도자임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또 스미스 의원은 미국 정부 또한 이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美 교회 내 번영복음 증가세...교인 76% “물질적 부는 하나님의 뜻”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 물질적 번영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믿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회와 자선 단체에 더 많은 기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신자의 비율도 늘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2022년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연구 결과를 이번 주에 발표했으며, 교회 신자 중 52%가 자신의 교회가 “교회와 자선 단체에 더 많이 기부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가르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7년(38%)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76%의 신자들이 “하나님이 자신들

에게 재정적 번영을 원하신다고 믿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7년 69%에서 증가했다.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한다는 믿음도 26%에서 45%로 크게 증가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스콧 매코널 전무이사는 “지난 5년 동안, 더 많은 교인들이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단적인 믿음을 포함한 번영복음(Prosperity gospel)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과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이러한 신념의 변화에 기여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번영복음은 신자들이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신념으로, 이는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대조되는 은사주의적 신념이다.

이러한 신념은 특히 젊은 세대와 교육 수준이 낮은 교인들 사이에서 퍼져 있으며, 18~34세(81%)와 35~49세(85%)의 교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정적 번영을 원하신다”는 의견에 가장 많이 동의했다.

이 온라인 조사는 미국 개신교 신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17년 8월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실시한 유사한 설문조사와 비교되었다.

감리교(93%)와 성경복귀운동(88%)의 교인들은 물질적 번영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믿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복음주의(80%) 교인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74%)보다 이 신념에 더 동의했다. 또한, 감리교(85%)와 성경복귀운동(71%) 교인들은 자신의 교회가 “더 많은 기부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데 가장 많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스콧 매코널은 “18~34세(63%), 35~49세(66%)의 젊은 교회 신자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더 자주 긍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월드미션대학교 설립자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뜻깊은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기념 학술세미나	기념관 개관식	기념 음악회	비전 넥스트
8. 17 (목) 오후 4시 월드미션대학교 신선목: “임동선 목사의 삶과 영성” 최윤정: “WMU 온라인교육과 영성의 방향”	9. 24 (주일) 오후 7시 월드미션대학교 임동선 목사 기념관 개관 기념 설교집 및 기념품 증정	10. 21 (토)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오라토리오 공연	11. 11 (토) 오후 6시 월드미션대학교 선교후원금 및 장학금 전달식 기념 논문집 및 화보집 출간식 임동선 목사 영상 상영회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213-388-1000 학교 홈페이지(kr.wmu.edu) 참조



이민자 상처 보듬는 크렌셔장로교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



크렌셔장로교회가 8월 27일(주일)에 창립 1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임직식을 진행했다. 시무권사에 지순실 씨와 서리집사에 홍경아 씨가 임명됐다. ©기독교일보

크렌셔장로교회(한현종 목사)가 창립 1주년 감사예배를 27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렸다. 한현종 목사는 '성령으로 하나되는 교회' (요한1서 4:12-13)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되는 역사를 일으켰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된 객체로서 존재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차별된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분열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니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면서, "이 세상은 분열되고 있다. 서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배운 사람 못배운 사람, 피부색의 차별, 이념의 차이, 가난하고 부자의 모습을 따라서 서로 갈라지고 분열이 가득한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계시다"고 했다.

한 목사는 "1900년도 초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을 당시 미국에 백인과 흑인의 분리와

차별을 규정한 법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셔서 백인과 흑인,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가 함께 사진을 찍을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으로 하나되어서 이 땅에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노력하면서 실천해왔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 실천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며 "감사한 것은 점점 사랑으로 하나되고 있고, 이웃 사랑에도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외로움과 상처, 아픔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을 증거하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예배 이후에 임직식에서, 시무권사에 지순실 씨가 임직했고, 서리집사에 홍경아 씨가 임명됐다. 이어 지명현 목사(소리엘)의 축가가 있었으며, 정현기 목사(CGNTV 미주 지사장)의 축도로 행사가 종료됐다. 크렌셔장로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다.

토마스 맵 기자

차세대 청년리더 양성 장학금 수여식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 서부총연합회가 주최하고 CBMC남가주연합회가 주관한 제2회 차세대 청소년 리더 양성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26일 예손몬테소리학교에서 열렸다. ©기독교일보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이하 CBMC)서부총연합회가 주최하고 CBMC남가주연합회가 주관한 제2회 차세대 청소년 리더 양성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26일(토) 예손몬테소리학교(최혜나 원장)에서 열렸다. 오현근 부회장(남가주연합회) 사회로 열린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Lauren Ahn, Chong Lim, David Shin, Eunsung Chu, Johnson Lee, Joshua Suh, Ryley park Samuel Kim, Sungmin Kim 총 9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위원장 안신기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원리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고 일터를 복음화하는 비전을 가진 크리스천 경영인들이 차세대를 격려하고 리더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차세대 장학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강승태 회장(CBMC 서부총연합회 총회장)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 차세대 장학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꿈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후배를 위해 받은 사랑을 나누는 리더가 되라"고 말했다.

황선철 직전총회장도 "앞으로도 골프대회를 통해 차세대를 위한 장학사업을 펼쳐

다음세대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수여한 Joshua Su 전도사는 "장학금을 허락하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다. 중 고등부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대학에 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답했다.

장학금수여식 앞서 열린 예배에는 최혜나 총무(남가주연합회 부에나파크 지회장)의 기도 후에 안신기 목사(CBMC 지도목사, 장학위원장)가 갈라디아서 6:7-9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외에도 제임스 하사장(가든그로브지회), 신용회장(OC 기독교전도연합회)이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황에스터 목사가 축가를 불렀고 최혜나 총무가 광고한 후 김영대 목사(연목회 이사장)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조셉 리기자

2023 밀알의 밤, 개그맨 김영철 메인게스트로 나서



2023 밀알의 밤 메인게스트로 개그맨 김영철이 나선다. 오는 9월 29(금)부터 10월

1(주일)까지 'We Are Family! (갈라디아서 6:10)'를 주제로 ANC 온누리교회, 주님의영광교회,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리는 밀알의 밤에서는 개그맨 김영철이 나서 그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간증을 나눈다.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는 매년 가을 '밀알의 밤'을 개최해 동포들에게 작은 위로와 휴식을 안겨주며, 장애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왔다.

지난 1999년 KBS 14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영철은 《강심장》, 《무한도전》, 《집사부일체》 등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인기 연예인으로 입지를 다졌다. 김영철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진실된 신앙으로 알려졌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웃겨드리고 기뻐하게 하는 개그맨이 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김영철의 아름답고 진솔한 삶의 나눔을 통해 한인교포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알의밤을 통해 모금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2024 밀알장학금'으로 지급된다. 밀알선교단에서는 2001년부터 장애인 학생들에게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시작하여 2023년까지 총 \$2,876,200을 전달했다. 김민선 기자

9월 29일(금) 오후 7:30 | ANC온누리교회
9월 30일(토) 오후 7:00 | 주님의영광교회
10월 1일(주일) 오후 7:00 | 감사한인교회
티켓 도네이션: \$20
문의: 562-229-0001 | admin@milalsca.org

디카시인협회 | 금주의 시



HAPPY BIRTHDAY

85세 목사님
생신축하 화분
사막의 도시
Los Angeles

-글, 사진: 김철빈



강사	날 짜
1강 박세헌	9/10 (일)
2강 국윤권	9/11 (월)
3강 이정업	9/12 (화)
4강 성요셉	9/17 (일)

오후 5시
등록 마감일 2023년 9월 7일 (수)

☉ 부에나팍 갓스패밀리 교회
God's Family Church
655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 등록비 \$150.00
Payable to Father School
- 등록문의
고광호 목사 310-896-6483
성요셉 목사 818-331-2481
*가능한 TEXT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 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

제 8373 차

LA 미주

목회자 16기

아버지학교

“착한 성도들이 만들어간 세계선교교회 50주년, 더욱 따뜻한 교회로”

[세계선교교회 김창섭 목사 인터뷰] “양적 성장보다 건강한 교회 세우고파”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교회 언제든 올 수 있는 그루터기 목표는 바른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친목 단체화 경계하고, 신뢰 바탕으로 바른 신앙 가르쳐야 교인들,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소망 품어

세계선교교회는 이민 초창기인 1973년, LA 한인타운에 뿌리를 내린 교회로 올해로 정확히 50주년을 맞았다.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오랜 역사동안 많은 한인들의 신앙의 요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고 교회 안팎으로도 항상 은혜가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칭찬받아 왔다.

현재 담임인 김창섭 목사는 항상 은혜가 있고 따뜻함이 있는 교회를 담임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기 중에 뜻깊은 교회창립 50주년을 맞게 된 것에 더욱 감사사가 넘쳤다. 새로운 50년은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교회,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 안는 교회로, 그리하여 항상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고 성도들에게 뜻깊은 제사를 제하고 있다. 다음은 김창섭 목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세계선교교회하면 LA한인타운에서는 누구나 이름을 알고 있다. 47주년 즈음에 담임에 취임해서 50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목회에 대한 소감을 말한다면.

세계선교교회는 LA에서 두번째로 세워진 교회다. 상당히 놀라는 부분은 한인타운에 다니다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교회 출신이라는 점이다.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LA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신앙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느낀다.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를 맡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목회하고 있다.

▶ 새로운 50주년을 더욱 따뜻한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신앙의 요람 역할과도 관련돼 있는 목표인가.

지금까지 한인타운에 50년을 있었으니 그야말로 동네교회처럼 누구나 편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고 계셨고, 또 우리교회에서의 좋은 추억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마치 그루터기 같이 언제든 생각하면 올 수 있도록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교회이고자 한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건강하게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제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2세들을



언제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인타운을 지키는 교회가 있다. 세계선교교회의 김창섭 목사는 양적 성장보다 바른 교회를 세우기에 가치를 둔다. 그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성도들과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꿈을 꾸는다. ©기독일보

위해서도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안 2세들이 영어권 교회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추세가 있는데 그것이 팬데믹 때문에 끊어져 버렸다. 그 2세 친구들이 대부분 온라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때가 되면 어머니교회가 생각날 것이다. 그들이 왔을 때 있을 만한 자리를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누구에게나 그루터기 같은 교회, 오면 안아주고 만일 가야할 일이 있다면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양적 성장과 부흥에 대한 목표도 있는가.

제 목회의 소신은 큰 교회보다는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민교회 같은 경우 예전 같은 양적부흥은 기대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바른 교회, 본이 되는 교회를 위해 소신있게 목회를 하고자 한다.

▶ 작은교회를 돕는 위브릿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웃교회를 돕는데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나.

위브릿지 운동 같이 서로 연합해서 나누는 일이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힘든 팬데믹을 겪었던 이민교회로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위브릿지교회 위로의 밤을 우리교회에서 한다고 할 때 저나 성도들은 모두 크게 환영했다.

현재 위브릿지 운동을 위해 교회에서 선교비를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언제라도 위브릿지 행사가 있다면 교회를 오픈할 것이다. 개척교회를 더 섬기고 싶고 아까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회에서는 선교 예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세계선교교회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선한 부담감이 있다.

▶ 이름에 걸맞는 선교를 위한 목표가 있는가.

꿈처럼 그리는 것이 있다. 1년에 선교사 한 가정을 해외에 파송하는 것이다. 7년이면 일곱 가정을 파송하게 된다. 이후에도 새로운 선교사를 매년 파송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다. 우리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선교헌금은 항상 강조하고 있다. 재정이 일반재정, 경상재정, 선교재정이 각각 따로 있다. 9월말에 항상 선교사님들을 초청해 선교부흥회를 하는데 3일간의 부흥회를 통해 선교의 열망을 성도들에게 심고 있다. 유명한 사람을 부르는 부흥회는 이제 트렌드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정말 현지의 생생한 간증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다.

▶ 바른교회, 건강한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회비전이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을 언제 갖게 되었나.

요즘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들이 점점 YMCA같은 친목단체가 되어 가는 경향을 느꼈다.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그대로 미워하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은 끝까지 대화하지 않고 대화할 사람만 대화하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교회는 계속 오는데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고 밥먹는 것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을 느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생겨나게 됐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바른 신앙을 하는

성도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무를 느끼고 담임을 2년 반정도 했고, 지금은 어떠한 확신이 생겼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다. 좋은 말, 화려한 문장, 그럴듯한 분위기로는 은혜를 주지 못하고 또 사람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좋은 신뢰관계를 맺는 것만이 교인들을 진정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분 나빠 할 수 있어도 교인에게 따끔하게 한 마디 하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언제든 잘못이 있으면 똑같이 따끔한 충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하고, 성도들과 좋은 신뢰관계를 맺는다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고 믿는다. 새로운 50년은 이런 신뢰관계 토대 위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 그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가.

교회에 와서 보니 성도들이 정말 사랑이 많다. 교인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그런 마음이 성도들 안에 확실하게 있으니까 제가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로 착하다. 거꾸로 생각하면 교인들이 착하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성도들이 선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교회가 50주년을 맞이 힘들었을 것이다. 선한 성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이런 성도들과 함께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누구든지 오면 보듬어 안고 품어주는 교회로 세워가고자 한다.

토마스 멩 기자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차세대 장애사역 리더 양성

10월 20-21일 (FRI-SAT)

ANC 온누리교회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주최:

특별위원:

MADE TO BELONG

KEYNOTE SPEAKER

KAY WARREN

CO-FOUNDER
SADDLEBACK CHURCH

DR. ERIK W. CARTER

LUTHER SWEET ENDOWED CHAIR IN DISABILITIES AT BAYLOR UNIVERSITY

RICK MCLEAN

PASTOR IN SPECIAL MINISTRIES AND ADULT MINISTRIES AT GRACE COMMUNITY CHURCH

DR. CHRISTINA KIMM

PROFESSOR IN THE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 AND COUNSELING AT CAL STATE LA

JENNI VON TOBEL

DIRECTOR OF DISABILITY & INCLUSION MINISTRIES AT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이 외, 한인교회 장애사역 전문가 11인

29년차 장애사역 전문가가 답한다!

PRE-CONFERENCE (10/20 2PM)

DISABILITY 101 새로운 접근 방법: 포용적 장애 사역

JENNI VON TOBEL (WILLOW CREEK CHURCH, CHICAGO)

REGISTER NOW

9월 30일 까지

SPECIAL OFFER

714-484-1190

K-CHURCHCONFERENCE.ORG

대학/대학원생/신학생은 20% 추가 할인

한/영 동시통역 제공

장애사역 논의 위해 한인 교계 한자리에 모인다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ANC 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와 공동주최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023년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메인 컨퍼런스에 앞서, 10월 20일(금) 2시에 ANC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되는 사전 컨퍼런스 포용적 장애 사역에서는 29년간 장애인사역을 해 온 제니 본 토벨(윌로우크릭 커뮤니티 처치 장애사역 디렉터)가 장애 사역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전략을 공유한다. 참가비는 40불이며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메인 컨퍼런스는 20일 오후 6시에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김태형 목사(ANC 온누리교회 담임), 에릭 카터 박사(베일러 대학교)의 개회연설과 함께 시작 된다.

개회연설에 이어 기조연설은 릭 워렌 목사(새들백교회)의 아내인 케이 워렌(Kay Warren) 사모가 맡았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및 장애사역자 15인이 장애사역의 핵심이슈에 대해 패널토론 및

12개의 주제강연을 이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크리스천 교육의 개별화 전략, 2. Changing the Narrative, 3. 하나님 형상의 회복, 4. Lessons in Inclusion, 5. 패널 토의: 미주 이민 한인교회 장애사역의 통합 예배 현주소와 방향점, 6. 영적 성장을 위한 교회의 역할, 7. Biblical Truths that We need to know about Disabilities, 8. Total Communication Worship Design, 9. 발달 장애인 예배세우기, 10. 교회에서의 장애우 사역, 11. 장애인교회와 교회성장, 12. 발달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교실, 13. Creating Communities of Belonging.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최초로 전 미주 주류 교회와 한인 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장애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으며 한/영 번역자막을 실시간 제공한다.

이영선 목사는 “3~17세 사이 발달장애인은 약 17%에 이르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

교회가 좀더 포용적으로 장애인과 함께 가는 사역을 고민하고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차세대 리더 양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강연자 제니 본 토벨은 “포용이란 단순히 장애인을 초대하는 것만이 아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을 만드는 것이다. 29년의 경험을 토대로 장애사역에 관한 모든 질문을 답하겠다”고 전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컨퍼런스의 참가비는 개인 신청 시 \$100, 교회 및 단체 신청 시 2인 기준 \$200로 추가 인원당 \$50이 추가되며, 대학생 및 신학생은 20% 할인된다. 참가 신청은 9월 30일까지이다. 장애사역에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미주 밀알선교단, 북미주개역교회, 태평양 은행(PCB Bank), Friendship Beyond Border Inc., 장애인 오케스트라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가 후원한다. 김민선 기자 문의 및 등록: 714-484-1190 K-CHURCHCONFERENCE.ORG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차세대 장애사역 리더 양성

MADE TO BELONG

KEYNOTE SPEAKER
KAY WARREN
CO-FOUNDER SADDLEBACK CHURCH

PRE-CONFERENCE (10/20 2PM)
29년차 장애사역 전문가가 답한다!
DISABILITY 101
새로운 접근 방법: 포용적 장애 사역
JENNI VON TOBEL
(WILLOW CREEK CHURCH, CHICAGO)

10월 20-21일 (FRI-SAT)
ANC 온누리교회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SPEAKER
DR. ERIC W. CARTER
LUTHER BOWEN ENDOWED CHAIR IN DISABILITIES AT BRANDEIS UNIVERSITY
DR. CHRISTINA KIMM
PROFESSOR IN THE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 AND COUNSELING AT CAL STATE LA
RICK MCLEAN
PASTOR IN SPECIAL MINISTRIES AND ADULT MINISTRIES AT CANCIE COMMUNITY CHURCH
JENNI VON TOBEL
ASSISTANT CHURCH LEADER AT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주최: GBC, ANC, Mial Mission, PCB BANK, Christian Reformed Church, FRIENDSHIP BEYOND BORDER INC.

“섬 아닌 다리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섬이 되었다”

제2차 3050차세대 목회자 세미나 민중기 목사 <균형잡힌 목회자의 삶>

“저 자신도 문제로 삼는다. 아일랜드가 아니라 브릿지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섬이 되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건, 별로 상관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세상과 대결도 못하고 세상의 용어를 잊어버려서, 세상과 교류를 못 하게 되었다.”

지난 8월 24일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된 <3050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의 세번째 강의 <균형잡힌 목회자의 삶>의 강사로 선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원로)는 오늘 교회가 세상과의 연결점을 잃어버리고 점차 고립되어 가는 현실에, “인문학적 백그라운드 없으면 우리끼리 천국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며 기독교가 융성하던 시기, 기독교를 이끌던 이들은 교회 안의 용어와 개념에만 갇히지 않고 그 당시의 사상과 개념을 섭렵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설득하고 기독교를 변증해낼 수 있었다며, 인문학적 통찰력을 지닌 목회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세미나는 제2차 차세대목회자 21인 초청 OC 영적 대각성 새벽기도회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었으며,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원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섰다.

민중기 목사는 먼저, 균형잡힌 목회를 위해 올바른 삶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을 적어도 일년일독해하고 있으며, 목회초반부터 독서클럽을 만들어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목민심서를 읽은 후, 이런 큰 그림을 갖고 목회를 한다면 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목민



8월 24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3050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의 세번째 강의에 강사로 선 민중기 목사는 교회가 세상과의 연결점을 잃어버리고 고립되어, “우리끼리의 천국”이 되어가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gracemi.com

심서의 각 장애 목회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대입해 설명했다.

인사와 행정,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이어서 “목회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목회의 권위가 무너진다”며, 행정과 인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성도의 양육’에 대해, 부교역자들과 6개월간 토론을 통해 목회 비전에 대해 논의했으며, 교인 구성을 고려해 ‘교육 목회’라는 비전을 정한 후,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하는데 14년이 걸렸으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비전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적 전쟁에 대해, “성도들이 설교 듣는 시간이 영적 전쟁 시간이다. 성도들이 세상적 세계관을 갖고 들어온다. 그들이 성경 말씀으로 그 가운데 잘못된 것과 우상이 뭔가를 발견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내 치리에 대해,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의거하여, 근신, 면직, 제적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부정을 저지른 교인을 징계하고 면직한 사례를 나누었다.

“교인이 바람이 났다. 그럼 가만 뉘야 할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징계를 했다. 모든 직분을 뺐고, 면직시키고 제명했다. 한 동안 교회를 나오다가 떠났다. 나중에 이 분을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회복시켜서 다시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투표를 통해 집사 직분을 줬다. 징계를 안하면 교회의 성결성을 유지할 수 없다.”

다음으로, 민 목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다른 지평에서 사역을 하셨다. 로마의 지평, 열십당의 지평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무력으로 일어나고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폭력으로 억압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교도, 공화정의 기반 만들어

그는 “칼빈주의가 영국 성공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성공회에 속해 있던 수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가 되었다”며, ‘커먼웰스(Commonwealth)’라는 말이 청교도적인 용어라며, 그들이 최초로 국민에 의해 통치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일군 주역이라고 말했다.

“커먼웰스는 공동의 재산이라는 뜻이다. 공화국을 창시한 사람들이 커먼웰스라는 말

을 썼다. 이 나라는 다 함께 참여해서 세우는 것이다. 당시 민주정치의 기반을 놓은 사람이 청교도들이다. 그들이 미국에 와서 자유로운 나라, 국민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를 세웠다.”

그는 반기독교 사상과 대결하기 위해, 성경에 입각한 사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며, 프린스턴 대학의 마이클 울저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을 꼽았다.

교회, 섬 아닌 브릿지 되어야

이어서 민 목사는 인문학적 통찰을 지닌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가 융성하던 시기의 사람들은 교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다. 기독교의 가치를 시대의 용어로 풀어줄 수 있던 사람들이다.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보면, 그는 당시의 상식을 섭렵했던 사람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를 통해서 신학을 재정리했다.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당시 기독교 세계를 이끌 수 있었다. 칼빈은 법학도서의 체계를 갖고 기독교강요를 썼다. 기독교적인 작품, 영화가 나오면 너무 유치하다. 불교 영화보다도 심오함이 떨어진다. 저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인문학적 백그라운드 없으면 우리끼리 천국이 된다.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했는데 교회 내부용이 있고,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가 있다. 인문학적 통찰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주디 한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크렌셔 장로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교회입니다

크렌셔 장로교회
CRENSHAW PRESBYTERIAN CHURCH

한현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1060 Crenshaw Bl. LA, CA 90019
213-407-1600

Olympic Blvd
Crenshaw Blvd
Country Club Dr.
Pico Blvd

크렌셔 장로교회
CRENSHAW PRESBYTERIAN CHURCH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조이스 리, M.D.

진료과목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예방 접종

왜 병원에서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오랜 대기시간만큼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아오셨나요?

무성의 진료로 숨은 병을 발견하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시니어 환자분들을 위해 최적의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센터메디컬클리닉을 경험해 보세요.

하루 진료 환자 최대 7명, 인당 최대 1시간!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 환자 등록 선착순 300명까지 /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세분화된 현대의학 단점 보완
- 질병 예방·건강한 삶 유지 초점

가정의학과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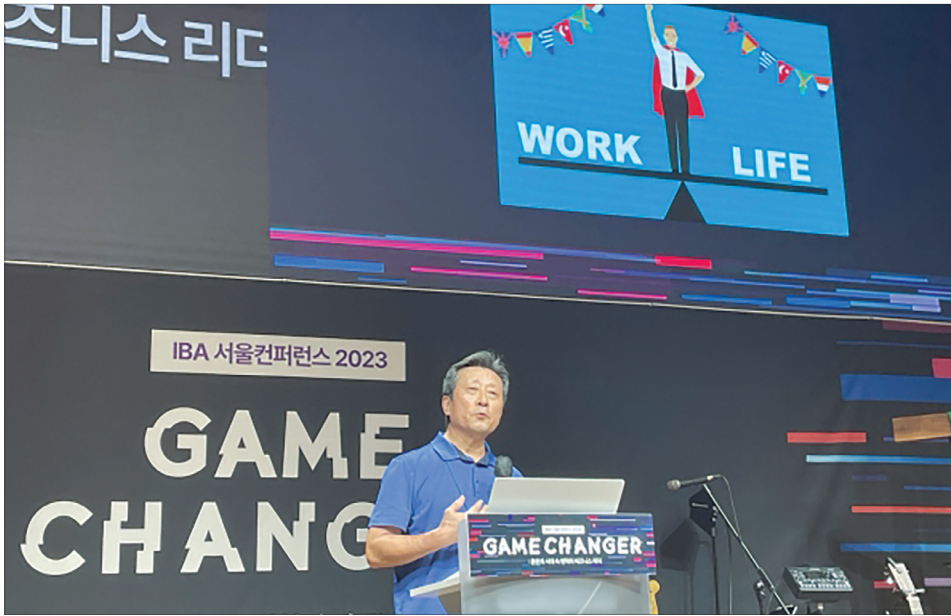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번 아웃’ 부추기는 ‘종교확장’에 매몰되지 말고, 영적 균형 찾아야”



국제적 선교번역단체인 위클리프의 부대표를 역임한 정민영 선교사가 ‘삶, 숨, 쉼’이라는 주제로 저녁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상진 기자

비즈니스 세계 속 선교적 삶을 격려하며 도전하는 IBA(사무총장 이다니엘 목사)이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혼돈의 시대 속 변혁의 비즈니스 리더’라는 주제로 ‘IBA 서울 컨퍼런스 2023’을 한사랑교회(담임 황성수 목사)에서 개최했다.

IBA는 ‘International BAM(Business As Mission) Alliance’의 약자로서, 2004 로잔 운동으로 인해 본격화된 글로벌 BAM(비즈니스 선교) 운동의 흐름에 따라 2007년 한국교회 BAM 운동을 위해 국내외 기업, 지역교회, 선교단체들이 모여 세운 연합운동체이다.

25일 저녁 집회에서는 국제적 선교번역사역단체인 ‘위클리프 선교회’(Wycliff)의 부대표를 역임한 정민영 선교사가 ‘비즈니스 세계 속 안식과 공동체’라는 주제 속 ‘삶, 숨,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민영 선교사는 “성경강해의 시간에 ‘안식’에 대한 내용을 부각하면서 사실 조금 늘었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이 주제는 비즈니스와 연결이 안되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코로나 사태가 준 뜻밖의 선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삶에 리셋 버튼

그는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가 준 뜻밖의 선물이 있다. 장기간 지속됐고, 우리는 몸살을 앓았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는 산업사회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당시 영국의 삶을 고발했다. 코로나로 인해 톱니바퀴가 멈췄다. 이로 인해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이 일 중독자들을 위해 리셋 버튼을 눌렀다’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했다.

◆우리의 일생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영혼이 성장

이어 “서양의 한 작가 앤 라모트(Anne Lamott)은 ‘우리가 오작동할 때, 우리도 가끔씩 리셋을 해야 한다’고 했다. 즉 ‘우리의 일

에 휴지기를 줘서 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락웰 켄트(Rockwell Kent)는 ‘우리의 일생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한다’고 했다. 일에만 몰두하면 우리의 창의성은 줄어든다”고 했다.

정 선교사는 “장기간 지속된 코비드 상황은 피조세계에게 희년의 안식 같은 뜻밖의 선물이 되었다. 우리의 활동과 동선이 제한되는 위기를 맞은 인간에게도 ‘강요된 쉼’이 일종의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왔다”며 “우리가 관행적인 태도는 바뀌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신 것이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이 ‘피조세계의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음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는 “성경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재창조로 끝난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것만 말한다면 복음을 천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창세기의 문화명령은 피조물인 인간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의 선교명령은 원초적 문화명령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교회는 ‘바로잡기’,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역’ 감당해야

이어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현 상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거의 분주한 일상과 사역으로 돌아가려 서두르기보다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바로잡기’, 곧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개혁이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전 도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형통한 날에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전7:13-14)라고 말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를 통해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 생각해 봤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물론 공예배는 중요하

종교개혁운동이 놓친 것, ‘쉼, 안식, 피정, 묵상’ 등 ‘번 아웃’ 부추기는 ‘천박한 신학’과 ‘행위주의 신학’

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민영 선교사는 “우리는 단지 호흡만 있는 ‘동물적 생존’을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아담처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시작되고 유지된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성경의 인간론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대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인간의 생물은 단순히 생물학적 연명이 아니라, 성서적, 신학적 차원에서 그분의 호흡으로 우리의 인간됨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공동체적 존재이시다. 그렇기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론을 깔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수는 말씀(Logos)인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은 성령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그냥 물질적인 존재의 기계적인 호흡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물질적 존재가 기계적으로 호흡하는 깜짝 쇼가 아니라, 영적 호흡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담과 하와는 빈곤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 비진리의 유혹에 빠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굶주림 가운데서 진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래서 크게 대조된다”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즉 동물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민영 선교사는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죽었다. 우리는 쉼(휴, 목적)을 향한 삶을 사는 것(마태복음 11:28)”이라며 “이것은 ‘대박 나게 해주겠다’가 아니다. ‘모두가 힘드는데 너희만 대박 나게 해 주겠다’도 아니다. ‘쉼’이다. 요즘에는 심지어 세상도 철이 들었다. ‘삶, 숨, 쉼’이라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세상의 것을 차용한 것이다. 그들도 요즘엔 웰빙(Well-Being)보다 웰다잉(Well-dying)을 말한다. 목적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성경적 시간관으로 볼 때,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한다. 끝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것이 어떤 목적을 지향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잠시 세상에 사는 것이다. 소풍을 온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분향은 천국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히 개신교 전통은 쉼이 약하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뤄야 한다. 종교개혁운동은 긍정적 문제도 있고, 부정적 문제도 있다”며 “종교개혁운동은 중세

적 이원론(성과 속, 사제와 평신도 등)에서 벗어나 모든 성도의 ‘일과 직업이 소명’으로 인식되면서면서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노동의 신성함과 침기적 근면과 성실)가 강조됐다.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했다.

◆‘닥치고 지상명령!’ 성과 중심의 공격적 전도와 선교 재고해야

정민영 선교사는 “우리 신학이 천박해 지는 신학을 500년간 이어왔다. 번아웃을 유도하며 심지어 ‘번아웃’이 되는 것이 믿음의 좋은 것인 양, 부추기는 ‘변태적 종교문화’가 있다”며 “선교를 논하면 그 무엇도 문제가 안된다. ‘닥치고, 지상명령!’이라는 ‘성과 중심’의 공격적 전도와 선교를 부추겼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선교’,는그 분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천민자본주의적 신앙’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것은 주님의 일이다. 내가 안 도와드린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나의 선교의 흑역사’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연합에 참여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가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것은 ‘힘으로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개념이다. 내가 아는 한 장로는 ‘하나님께 최고 많은 십일조를 드리겠다’라고 했었다. 그런데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한 한 장로는 결국 탈세로 감옥에 갔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가족관계’나 ‘공동체’보다 ‘사유재산’을 더 추구하는 나라이다”라며 “그런데 이것이 젊은이들만의 문제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삶의 질과 여유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주님은 ‘약덕 기업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민영 선교사는 “우리는 ‘종교를 확장하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건강한 쉼을 통해서 일과 쉼 모든 것이 즐겁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IBA ‘서울 컨퍼런스 2023’은 비즈니스 리더, 지역교회 목회자, 선교단체 대표 및 현장 선교사 등 다양한 이들이 연합적으로 참여하여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선보였다. 크게 오전의 주제강의와 오후의 선택 강의, BAM Insight, 영역별 네트워킹 모임, 등을 비롯하여 저녁집회로 마무리 됐다.

이상진 기자

365일 24시간 주님과 함께! CGN LIVE와 함께!

무료 시청



스마트폰에 CGN LIVE 앱을 설치하시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CGN LIVE 앱 설치방법

구글 플레이 앱 또는 앱 스토어에서

CGN LIVE 를 검색 하세요



무료 다운로드

삼성 (Android)
GET IT ON Google Play

아이폰 (iOS)
Download on the App Store

설치문의 : 323-932-1200

추천 프로그램 방송시간 안내(LA시간)

- 새벽기도회 오전 2시 / 오전 5시
- 주일예배 오전 7시 ~ 오후 10시 30분
- 하용조목사의 말씀 오전 3시 50분 / 오전 9시 / 오후 6시 50분
- 설교말씀 월요일 ~ 금요일 - 오후 10시 30분
월요일 ~ 토요일 - 오전 7시 10분 / 오전 7시 50분 / 오후 2시 / 오후 2시 40분 / 오후 4시 10분 / 오후 5시 30분 / 오후 10시 30분 / 오후 12시 40분
- 성경읽기 월요일 ~ 토요일 - 새벽 3시 10분 / 오전 6시 20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오후 11시 40분
- QT(말씀묵상) 새벽 2시 50분 / 오전 6시 / 오후 9시 30분
- 건강체조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50분
- 조해련의 오십소 화요일 오후 6시 10분 / 목요일 밤 12시 / 금요일 오전 10시 50분
- 신앙간증(어메이징 그레이스) 수요일 오후 6시 10분 / 목요일 오전 10시 50분
- 신앙간증(더불어 사는 삶) 수요일 오전 6시 40분 / 목요일 오전 12시 10분 / 금요일 00:00 / 토요일 10시 50분



TV로 CGN LIVE 시청하기

남가주 디지털공파 채널 44.9(디지털안테나 설치) CGN 시청용 전용수신기 설치 (HD 고화질로 시청가능)

문의 : 323-932-1200 | cgntvusa@gmail.com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 : 16~17)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고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동안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주최 : 기독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Tel (213)739-0403 chdailyreporter@gmail.com

특별후원: BTS 솔라 디자인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명성교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제사대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 07:00, 오전 6시
3부예배(제사대예배) 오전 11:30 (토-일) - 현정성교회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모란진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교차)
T. (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전당예배 오전 9:00 여중/남(ANNA)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아부,초중고동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 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www.youngnak.com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에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요동부 오전 10:50 토요일에 통일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에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동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참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에: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동부, 유초동부 오전 11:00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안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동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동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강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성경강부 오후 7:00(금)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강부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막)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강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에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강부 오후 7:00(금)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에 오후 7:3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일성경강부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wgmc.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w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침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에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니카라과 정부, 예수회 법적 지위 박탈 및 학교 자산 몰수



2021년 11월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이 5선에 성공하자 전국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프랑스24 뉴스 보도화면 캡처

니카라과 정부가 예수회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최소 3개의 학교를 폐쇄했다. 이에 따라 예수회 자산은 곧 몰수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니카라과 정부는 2018년부터 가톨릭 성직자와 교회 관련 단체를 점점 더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CP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예수회가 운영하는 중앙아메리카 대학교(UCA)의 법적 지위를 취소하고 은행 계좌를 동결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내무부는 마리아 아멜리아 코로넬 장관의 승인을 받은 성명을 발표한 후, 예수회 명령이 2020, 2021,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보고하지 않았고, 2020년부터 이사회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니카라과 정부와 가톨릭교회 사이의 긴장은 2018년 시위를 교회가 중재한 이후 고조됐다. UCA 캠퍼스는 2018년 반정부 시위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해당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몇몇 학생 지도자들의 모교이기도 하다.

통령에게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크리스토퍼 웅퀴스트(Christopher Ljungquist) 미국 가톨릭주교회의(USCCB) 국제정의 및 평화사무소 라틴아메리카 고문은 “오르테가를 ‘신성한 니카라과를 위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 묘사하는 이념적 우산이 이 나라의 가톨릭과 개신교 단체 및 개인을 박해하는 배후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웅퀴스트는 “오르테가 정부가 스스로를 ‘국가의 구세주, 민족 해방자’로 여기는 운동인 ‘정치적 메시아주의’ 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가 한창이던 2018년 니카라과를 방문했다고 밝힌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왕좌 뒤의 진정한 권력이라고 믿고 있다”며, 대통령의 부인인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그녀의 연설은 연극적이고 화려한 정치적 설교다. 그녀는 기독교 상징과 뉴에이지 신비주의를 결합했다”면서 “니카라과 사회 전체, 특히 종교를 운동의 이념적 통제하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교회 같은 기관이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면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정치적 메시아는 질문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CSW)는 “해당 성명은 비영리 단체에 적용되는 법률 제1115호의 34조와 35조를 위반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며 “올해 니카라과에서는 최소 26개 대학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UCA가 니카라과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난하며 이를 ‘테러 중심지’로 규정했으나, 예수회 중앙아메리카 관구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며칠 후 당국은 마나과에 있는 예수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사법부 관계자들과 함께 빌라 델 카르멘 건물을 찾아온 경찰은 해당 건물이 정부 소유라고 주장하며 예수회를 쫓아냈다.

도이체 웰트(Deutsche Welle)에 따르면, 2018년 4월 이후 니카라과에서는 약 3,500개의 비정부기구가 해산됐으며, 여기에는 인권, 환경 문제 및 사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단체들이 포함된다.

CSW 책임자인 안나 리 스탕글(Anna Lee Stangl)은 “정부의 조치가 우려스럽다”며 “국제사회가 다니엘 오르테가 대

니카라과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50위를 기록했다. 오픈도어 보고서는 “니카라과에서는 특히 가톨릭교회가 표적이 된다”며 “정부의 조치에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방과 감시,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2년 보고서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의 성직자 체포와 강제 추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USCIRF에 따르면, 가톨릭교회에 대한 추가 조치에는 살해 위협, 종교 물품 절도, 불법 교회 출입 등이 포함된다. 올해 초 범인은 오르테가를 비판했던 가톨릭 주교 롤란도 알바레즈에게도 2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의 시민권을 박탈한 바 있다.

호주 기독교계 “전환 치료 금지법, 종교 자유 침해 심각”

호주의 기독교 단체들은 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서 제안된 새로운 법안이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부모, 목사, 의료 종사자들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비확정 진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NSW의 의회는 최근 성적 지향 및 정체성과 관련해 소위 전환 치료(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을 태어난 성별과 일치하도록 바꾸기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호주기독교로비(ACL)는 “법안 초안이 최근 주요 뉴스 매체에 유출됐다”며 “해당 주제에 대한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의 자유로운 표현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암시한다”고 우려했다.

ACL은 “새로운 개종 관행 법안에 따르면, NSW 부모들은 자녀와 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법적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다”며 “유출된 법안 페이지는 새로 선

출된 노동당 정부가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선거 전의 약속을 어기고 있음을 보여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일부에 의료 전문가가 최선의 의료 관행을 희생하며 ‘확인’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성별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의료적 성별 재배치 과정을 거치지 말라고 조언한 부모들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목사나 교회 성도들이 성 문제에 관해 성도들을 직접 묵회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ACL은 “이러한 전개는 경각심을 준다.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속한다”며 “우리는 자녀의 안전과 성과 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옹호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 목회자, 의료 전문가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도록 새 (노동)정부에 즉각 대응하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마지막 날, 신자와 불신자는 어떻게 심판 받을까”



그렉 로리 목사. © 하비스트 교회

미국 하비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의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는 최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의 차이에 관해 언급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로리 목사는 지난 20일 마지막 때 시리즈의 일부로 전한 설교에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든 사람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그룹은 ‘다른 종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말씀을 열었다.

로리 목사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리고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을 언급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좌 대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다. 거기까지 가면 되돌릴 수 없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했다.

로리 목사는 이어 “기독교인을 위한 심판”에 대해 “그것을 주님께 충실하게 봉사한 대가로 상을 받는 시상식으로 생각하라”고 했다.

또 “이는 사람들이 운동 경기에서 받는 상이나 학문적 성공으로 학위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 일부 상은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만 수여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살고 나중에 뵙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

을 깨달았다. 이제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당신은 최고의 버전이 되어야 한다. 나는 최고의 버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로리 목사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며 “그때는 보상이 부여되는 때이기에 ‘당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당신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백보좌 대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두 번째 기회는 없다”며 “이것이 바로 당신이 무엇을 할지 지금 결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후에 어디에서 보낼 지는 당신이 결정하라”고 했다.

로리 목사는 ‘나의 선행이 나의 악행보다 크다면 구원받는다’는 신념을 언급하며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나도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한 것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했다.

이어 “난 이 점에 도전하고 싶다. 당신의 선한 일이 정말로 나쁜 일보다 더 많은가? 정말 그러한가?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천국은 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후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며 “진정한 신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서 볼 수 있는 선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사람들은 당신의 열매와 행동, 행위를 통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초등생들에게 ‘성소수자 책’ 읽어 준 美 교사... 해고는 ‘정당’

조지아주 교육위 “교실은 학습 위한 중립적 장소 돼야”

조지아주 교육위원회는 성소수자의 정체성에 관한 그림책을 학생들에게 읽어 준 5학년 교사를 해고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했다. 이 위원회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콘텐츠에 대해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0년 동안 교사로 근무해 온 캐서린 린덜르(Katherine Rinderle)는 지난 3월 코브카운티의 듀웨스트(Due West)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의 그림자는 보라색’(My Shadow is Purple)이라는 책을 읽어 줬고, 이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에서 주인공의 그림자는 보라색, 다른 이들의 그림자는 파란색이나 분홍색으로 나타난다. 성별 정체성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색상들을 사용한 것이다. NBC뉴스가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코브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린덜르의 해고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찬성 4명, 반대 3명이었다. 이사회 공화당원 4명은 찬성, 민주당원 3명은 반대했다. 앞서 은퇴한 교육자 3명은 이틀간의 청문회 끝에 “린덜르가 교육청의 정책을 위반했지만, 해고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교육구 대변인은 21일 CP에 보낸 성명에서 “어려운 문제가 종결돼 기쁘다”면서 “우리는 교실에서 교육하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에 집중하는 데 매우 진지하다. 이사회의 결정은 그 사명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학군의 셰리 컬버(Sherry Culver) 변호사는 린덜르가 학생들과 성 정체성 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코브카운티 교육청은 교실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중립적인 장소로 만드는 데 매우 진지하다”며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신념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은 우리 교실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부빈곤법률센터(SPLC)와 함께 린덜르를 대리하는 굿마크(Goodmark) 법률사무소의 크레이그 굿마크(Craig Goodmark)는 “교사는 해고 결정에 대해 조지아 교육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며 “그녀는 잠재적으로 법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자신의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굿마크가 언급했듯, 린덜르는 여전히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다른 학교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린덜르는 17일 SPLC를 통해 성명을 내고 “다양한 학생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나를 해고하기로 한 교육구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구는 모든 학생들이 변명하지 않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 줄 가치가 없다는 유해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의도적으로 모호한 정책에 기반한 이러한 결정은, 보이지 않는 선이 어디에 그어질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에 더 많은 교사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 것이다. 검열은 피해를 지속시킨다. 학생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CP는 “린덜르는 ‘교실에서 특정 이념에 관한 교육을 금지하고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더 많은 발언권을 제공하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 제정 후 해고된 최초의 조지아 교사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발리세플 OC세플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3부 예배 오전 1:30 금요성경연구회 목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이항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면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벘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이우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예배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혁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강령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보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최순환 담임목사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일제시대의 교회 부흥과 배교의 양면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이 군국주의를 강화하고 모든 학교와 교회에도 친황 숭배를 강요하면서 교회에는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념적 혼란과 위기 속에서 교회를 통해 내세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민족의식을 더욱 자각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의 성장이 이어지면서 교회는 백만구령 운동으로 점화되어 부흥은 지속되었다.

그러한 부흥의 시기에 교회를 향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1935년 3월에 평남 지사로 부임한 야스다게는 11월 4일 평남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장 회의를 소집하고 평양 신사(神社)에 참배하라고 명령했다. 이 때에 평양의 숭실학교 교장 윤산은 선교사와 송의여자중학교와 의명중학교 교장은 신앙 양심상 문제로 참석할 수 없다고 끝까지 거절하다가 교장직을 파면당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독교 학교는 폐쇄되거나 신사참배에 불응한다는 마켓 선교사 계열과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신사참배에 동조해야 한다는 언더우드 선교사(2대) 계열로 분열되기도 하였다. 당시 장로교계 학교는 전문학교가 3개교, 중등학교가 12개교, 초등학교가 60개교로 수용 학생은 약 10만명에 이르렀다. 만일 문제 해결이 곤란하게 될 경우 최후에는 평양 및 전국에 퍼져 있는 모든 기독교계 학교가 폐쇄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1937년부터 일본의 조선총독부는 군국주의 강화를 위해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명분으로 친황 숭배를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교회 측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었다. 먼저 선교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워졌다. 이어서 교회에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집요하게 강요하였다. 그것은 교회당 안에 입장기를 달 것, 국기에 대한 경례, 국가봉창, 동방요배, 황국신민의 선서 제창, 서력 연호 사용 폐지, 신사참배였다. 이어서 교회에 대해 더욱 노골적인 반기독교적인 요구를 강요하였다. 그것은 교회 내에 “가미다나”라는 작은 우상 신단을 만들어 두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그곳에 절을 하게 하는 “동방요배”를 강요하였다. 이에 대해 평양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는 “신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사참배는 10계명에 위배되는 죄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입니다.”라며 거부하였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제27차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열렸다. 총회장 흥택기 목사를 필두로 총회 산하의 평양 노회, 평서, 안주, 만주 등 총대 88명과 장로 88명, 선교사 30명 등 총 206 명이 참여하였고 평양경찰서 순사들이 예배당을 삼엄하게 둘러싸아 일제 다른 방청객들의 입장을 차단하였다. 이 총회를 대표해서 평양 노회장 박용를 목사는 “신사참배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하면서 신사참배 결의안을 제의하자, 평서 노회장 박익현 목사의 동의와 평안도 안주 노회장 김인섭 목사의 재청으로 사회자 흥택기 총회장이 “신사참배는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목사 회원들은 “예”하고 신사참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총회장은 부를 묻지 않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이날 총회를 마치고 신사참배를 즉시 실행할 것을 특청하여 전국 노회장 23명이 총회를 대표해서 평양의 ‘서기산 신사’에 도착하여 참배하였다. 이날은 교회사적으로 가장 수치스런 교회의 배도였다.

이 신사참배 결의와 통과에는 평양의 대형 장로교 목사들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이들은 참된 신앙의 사수보다는 교권을 유지하기 위한 배도를 서슴없이 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사참배에 목숨을 걸고 결연히 거부한 주기철, 박봉진, 허성도 목사 등이 있었으며 이에 동참한 성도 약 2천여 명이 있었고 폐쇄한 교회가 200개가 있었다. 한편 평양신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를 성토했으며 신사불참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으나, 평양 경찰서는 이런 기미를 눈치 채고 학생 다수를 체포하고 교수 박형룡과 김인준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 크로스소트의 콘스탄티노플 교회 개혁

크로스소트는 안디옥에서 12년간 목회했다. 크로스소트의 명성을 전해 들은 로마 황실의 실력자 중에 궁내 대신 (황궁 시종장) 에우트로피우스가 있었다. 397년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벡타리우스(Nectarius)가 사망하자 궁내 대신 에우트로피우스는 황제에게 강력하고 집요하게 요한 크로스소트를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로 추천하였다.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테오필로는 자기 사람을 콘스탄티노플에 심으려 했다. 테오필로는 크로스소트를 싫어했고 그가 콘스탄티노플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를 눈치챈 에우트로피우스는 황궁 사무국에 입수된 테오필로 주교를 고발하는 문서를 테오필로에게 보여주며 테오필로의 입을 막았고 테오필로도 자기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크로스소트 자신도 콘스탄티노플행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황실이 원하는 성직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루돌프 브랜들레는 콘스탄티노플 주교에게는 다분히 정치적인 처세가 요구되었다고 한다. 크로스소트의 전임자 벡타리우스는 전형적인 정치적 성직자였다. 벡타리우스는 암브로시우스처럼 성직을 서품받기 전에 관리였고 세레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권력의 속성을 잘 알았고 황실의 비위를 맞추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

반면에 크로스소트는 인문학 훈련, 건전한 신학 훈련, 수도원에서 경건 훈련 그리고 성공적인 목회 경험을 가진 건강한 목회자였다. 그는 안디옥에서 성도들의 강력한 추종과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크로스소트는 콘스탄티노플로 가기를 진심으로 거절했다. 황실은 크로스소트를 납치하듯 콘스탄티노플로 데리고 왔다. 크로스소트는 398년 2월 26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로 취임했다.

로마의 황궁 시종장 에우트로피우스가 왜 요한 크로스소트를 그토록 원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황실을 위한 좋은 설교자를 원했는지, 모든 죄악의 비판자로 알려진 요한이 원로원과 싸워 줄 것을 기대했는지 알 길이 없다. 여하간 당시 막강한 세도가가 요한 크로스소트를 강력하게 추천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수도의 총대주교가 된 그는 황궁과 너무 밀착되어 부패한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생활을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신자들에게도 윤리적 생활을 강조했다. 그리고 에베소(Ephesus)에서 주교 회의를 개최해 성직매매를 한 6명의 성직자를 면직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와 나눔 사역을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엄청난 충격을 주는 교회 개혁이었다.

크로스소트는 스스로 개혁을 실천했다. 크로스소트는 목사관에 있는 값비싼 물건들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병원을 지었고 수도원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 봉급을 털어 나눔을 실천했다. 또 교회 헌금으로 화려한 연회 배설이나 건물 건축을 금했다. 팔라디우스는 자신의 책 <크로스소트 무스의 생애에 관한 대화>에서 크로스소트는 헌금의 낭비를 신성 모독으로 여겼다고 한다. 크로스소트는 재정 감사도 아주 꼼꼼하게 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젊어서 수도원을 찾아갈 만큼 도덕적 삶을 추구하였다.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콘스탄티노플 성직자들의 삶은 지나치게 안락하고 풍족했다. 부패한 성직자들이 많았다. 그는 부패하고 타락한 성직자를 징계하고 부자집을 기웃거리던 도시의 수도사들을 수도원으로 보냈다. 크로스소트는 설교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을 선포하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줄 것을 호소하였다. 크로스소트는 교회 부동산을 정리하여 병든 사람과 나그네를 위한 시설을 준비했다. 그는 상류층 귀부인들의 도움을 받아 여자 봉사자들과 과부들이 행하는 사회사업을 재조직했다.

그는 또 콘스탄티노플 교외에 나병을 위한 병동 건립을 계획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별장을 가진 부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히 좌절되

었다. 하지만 크로스소트의 사회적 사업에 대한 비전은 시대를 앞섰다. 요한의 위대한 본보기는 후대의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약자를 돌보는데 길잡이가 되었다.

크로스소트의 개혁에 성도는 열광했다. 하지만 이런 개혁은 성직자들, 수도사들 그리고 로마 황실을 불편하게 했다. 그들은 격렬하게 크로스소트의 개혁 작업을 비난하고 반대했다. 가장 극렬한 반대자는 그를 주교로 세운 알렉산드리아 테오필로 총대주교였고, 그는 황실과 결탁해 크로스소트를 쫓아냈다.

그는 황실 특히, 황후의 지나친 사치와 탐욕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따라서 그의 황실과의 관계는 심히 좋지 않았다. 그는 403년 콘스탄티노플 근교 퀘르치아(Quercia)주교회의에서 모략으로 면직되었다. 당시 로마의 아르카디우스(Arcadius)황제는 이 결정을 수용해 그를 비두니아(Bithynia)로 귀양보냈다.

그러나 신자들이 이 결정에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등 이상 기후가 나타나 놀란 에우독시아(Eudoxia) 황후는 그의 유배를 취소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귀환했다. 콘스탄티노플에 복귀한 그는 잠시 평안을 누렸으나 2달 만에 황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황제는 404년 부활절에 다시 크로스소트를 체포했다. 그의 체포를 반대하는 성도들이 강력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황제는 그를 아르메니아 지방 쿠쿠수스로 유배시켰다. 성도들은 그를 만나려고 가는 것을 성지순례로 여겼다. 크로스소트를 찾아가는 신자들 행렬이 계속되고 쿠쿠수스가 논란의 중심에 서자 황제는 그를 흑해 동편 피티우스(Pityus)라는 외딴 곳으로 가게 했다.

요한 크로스소트는 너무 쇠약해 걸어서 유배지로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잔인한 그의 대적들과 군병들은 그를 맨발로 걷게 했고, 채찍으로 길을 재촉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느끼고 인근 교회를 찾아가 성찬식을 하고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눈을 감았다. 크로스소트는 407년 9월 14일 코마나(Comana)에서 순교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제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기독교(세종대), 목회학박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홍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연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정회원, 온캠퍼스 수업, CANVAS 기반 온라인 수업, 실시간 화상수업,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수업,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학자금 지원 (Col & Pell Grants)
학부 | 신학, 상담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석사, 목회학박사, 상담학석사, 상담학박사, 신학박사, 상담학박사, English M.Div., 신학석사, 상담학석사, 목회학박사
주소: 15605 Carner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a.edu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근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놀익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균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com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홍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sc@gmail.com

김요한 담임목사
Global United Church
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 (213)221-9147 yohan72@gmail.com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강준민 칼럼

좋은 반복이 기적을 낳습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좋은 반복이 기적을 낳습니다. 제가 반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말씀 묵상 속에 감추인 반복의 지혜 때문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라”(수 1:8). 말씀 묵상의 비밀은 반복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합니다. 묵상이란 뜻 속에 “반주(反芻)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반추란 소가 삼킨 음식을 다시 꺼내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반추란 어떤 말이나, 어떤 일을 되풀이하

여 의미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의 비밀은 바로 반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먼저 머리에 새겨집니다. 성경 암송은 말씀을 먼저 머리에 새기는 것입니다. 암송한 말씀을 더욱 깊이 반복해서 묵상하게 되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마음 판에 새겨질 뿐 아니라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됩니다(골 3:16).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눅 6:45).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 묵상을 통한 행동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은 행동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묵상의 비밀은 반복 속에 담긴 즐거움입니다.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 1:2). 말씀 묵상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즐거움과 반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반복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반복의 장애물은 게으름과 조급함과 지루함입니다. 반복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지루함을 정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어떤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 지루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복의 열매는 지루함의 과정을 잘 통과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반복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쁜 반복은 나쁜 습관을 낳고, 나쁜 습관은 나쁜 성품을 낳습니다. 나쁜 성품은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나쁜 반복보다 어려운 것이 좋은 반복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나쁜 반복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게 익숙해집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반면에 좋은 반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힘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좋은 영성은 시야를 넓혀줍니다. 좋은 것을 반복하게 되면 시야가 넓어지고,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복은 탁월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탁월한 연주와 탁월한 작품은 모두 반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반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은 반복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거듭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후에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패역했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나중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서울 여대 장경철 교수님은 《성품, 두란노》 이란 책에서 참된 사랑의 비밀은 회수를 더해가는 반복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의 회수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성품도 회수를 더해가는 반복을 통해 형성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반복은 참된 사랑의 비밀이며, 아름다운 성품을 형성하는 비밀입니다.

좋은 반복은 탁월한 스승 중의 하나입니다. 프랭크 티볼트는 “반복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스승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반복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리고 성벽은 7일 동안 13번 반복해서 도는 가운데 무너졌습니다(수 6:20).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7번 반복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소낙비가 임했습니다(왕상 18:45). 나아만 장군의 나병은 요단강에 7번 반복해서 몸을 담갔을 때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왕하 5:14). 좋은 반복을 통해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좋은 반복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구봉주 칼럼

단테의 신곡 part 3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이탈리아 시인이자 철학자, 단테 알리기에리가 쓴, 신곡을 두 차례 칼럼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지옥을 탐험하는 이야기와 제가 받은 인사이트를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단테가 연옥을 여행하는 이야기와 연옥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단테의 신곡, 천국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단테가 상상하는 천국은 총 10층 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달에 있다고 해서 월광천, 그 위에는 수성천, 금성천, 태양천, 화성천 이렇게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이름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국편은 단테가 그가 평소애 가지고 있는 진리, 신앙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서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천국의 가장 하층인 월광천은 천국답지 않게 이 땅에 살 때, 주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았으나, 주님께 했던 서원, 즉 맹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도 천국인데, 무엇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간 곳이라고 묘사한 점이 독특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부도수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생각하니,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내 신앙의 진실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대충해 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대하십니다. 대충이 없으시고, 늘 정확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하신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

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들퉁 받았을 때 했던, 헌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맹세는 아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했던 심일조, 봉사와 섬김, 교회사랑,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단테의 상상력이 혹시나 천국의 실재가 아닐까 싶어 두렵습니다.

그리고 단테가 상상한 천국의 모습 중에 흥미로운 점은 그가 수성천에서 솔로몬을 만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점입니다. 아마도 단테의 생각으로는 솔로몬이 천국에 갔으리라 생각했던가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 재직하던 말년에 자신이 거느린 왕후들로 인해 우상숭배를 조장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잠언과 전도서 말씀을 보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그의 신앙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길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췌든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말년에도 끝까지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테의 신곡, 천국편에서 받은 인사이트는 그가 신앙과 사랑,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을 알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가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적절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에는 깊은 고민과 묵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없이 산다면, 우리 인생은 자칫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에게 생명과 인생이 주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람마다 인생의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정답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실질적으로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 사명을 찾아 인생의 여정을 의미 있게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슬랑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믿음은 해석을 바꾸어 긍정을 만든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약 200여 년 전에 덴마크는 프러시아, 지금의 독일과 전쟁을 해서 졌습니다.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좋은 땅은 다 빼앗기고 추운 바닷바람과 돌과 모래, 잡초만이 무성한 황무지의 땅만 남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룬트비 목사님이 일어나서 3애(愛) 운동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

랑하자.”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소망이 넘쳐나면서 온 나라 안에 가득했던 비탄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후 200여 년 동안 가장 나쁜 환경과 조건에서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잘 사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에 절대적 영향은 삶이나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긍정적이 되면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부정적이면 결국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해석은 자기에게 축적된 기억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유명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그 식당에서 데이트에 성공하였거나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가진 기억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식당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 다른 한 사람은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배탈이 났었거나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한 기억이 있다면 좋지 않은 해석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좋은 기억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선악분별로 사는 사람에게는 불공평과 억울함, 아픔과 실패의 기억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좋은 기억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에 꼭 붙잡히게 합니다. 하지만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과거의 기억을 다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

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 했다가 노예로 팔려 억울하게 고생을 했던 요셉에게는 나쁜 기억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훗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던 나쁜 일들 때문에 이젠 죽었다고 생각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쁜 기억이 아닌 좋은 기억으로 자신을 채워놓았습니다. 믿음으로 기억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었기에 어떤 억울함과 고난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믿음으로 모든 해석을 바꾸어 긍정을 이루는 삶을 기도드립니다. 샬롬!

김재성 교수 칼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혜택들 (2)



김 재 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명예교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연합에 대한 교훈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16세기 유럽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상세한 성경적, 교리적, 신학적 교훈들을 남겼다.

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복음의 요약이며, 성령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강조한 신학자는 요한 칼빈이다.

그는 구원론에서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그의 전체 신학사상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은 초대교부들의 저서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성도들에게 교통되어지는 개념을 파악하였다. 특히,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알렉산드리아의 씨릴, 끌레르보의 버나드 등의 저서들 속에서 중요한 용어들과 개념들을 얻었는데, 로마 가톨릭의 공로 사상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칼빈은 교부들의 용어들을 재정비하고, 자신의 입장을 첨가하여 명료화했으며, 교리적인 논쟁에 있어서 필요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굴해 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임재설이라는 성만찬 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기초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했다.

칼빈의 신학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며, 칼빈의 구원론에서 핵심요소로 해당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통을 성만찬 교리에서만 아니라, 이미 그의 신학의 전체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구원론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자에게 “칭의와 성화”라는 “이중적 은혜”가 주어진다. 칼빈은 강조했다.

하지만,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칭의의 기초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루터파 신학자 오시안더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논박했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머리와 지체들이 서로 연합되는 일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일이나, 간단히 말해서, 그 신비한 연합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면, 그가 받으신 선물들을 그 연합을 통해서 우

리와 함께 나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우리 바깥에 계시는 분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으며, 그의 몸에 접붙인 바 되었으며, 간단히 말해서 황송하게도 그가 우리를 자기와 하나로 만드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의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이다.”

칼빈은 우리에게 이뤄진 구원에 대해서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근간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매우 특별하다. 또한 그의 영적 임재설이라는 성만찬 교리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세례와 성만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로부터 모든 영적인 생명력이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에게 공급된다.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근원이다”고 칼빈은 강조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결과로 인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들을 모두 다 잃어버렸다. 사망의 선고를 받은 인간들은 흠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생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셔야만 가능하다. 하나님 자신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는 방법이 나와야만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와 연합된 자로서 영생의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 차원: 성육신적인 연합, 신비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

이제부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칼빈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실제적인 참여”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즐거워하도록 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지도록 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보다 더 선명하게 이뤄지는 연합은 삼중적이라고 칼빈은 풀이했다. 그가 제시한 연합의 개념은 “성육신적인 연합, 신비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연합의 차원들, 즉 그리스도와의 교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칼빈의 해석에 주목하고자 한다. 1555년 3월 8일, 피터 마터 버미글리가 칼빈과 베자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 대한 서신을 보내왔는데, 자신이 풀이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이에 대한 칼빈의 답장이 1555년 8월 8일자로 보내졌는데, 바로 그 서신 속에 칼빈이 생각하는 세 가지 연합의 개념들을 정확히 제시했던 것이다. [계속]

현대인의 필수품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하루 5분

으로

허리 통증, 손발 저림 통증, 통증 해결!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다이아몬드바 무료체험

오희용 내과 내

20627 GOLDEN SPRINGS DR. SUITE #2 - D & E DIAMOND BAR, CA 91789
Phone : 909-480-0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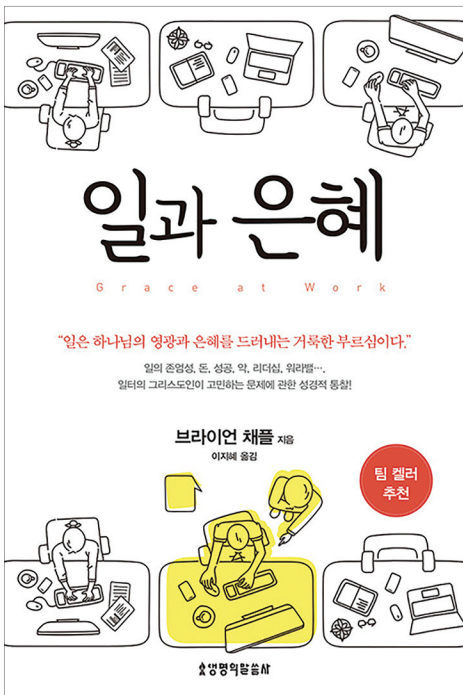
Z-UP 전자동거꾸리

LOLC Inc. | Tel. (213)703-0240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은혜의 힘으로 일하는 우리]

하나님 은혜 절실히 필요한 모든 크리스천 직장인에게



일과 은혜

Grace at Work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일터 존엄성, 돈, 성공, 악, 리더십, 워라밸... 일터의 그리스도인이 고민하는 문제에 관한 성경적 통찰!

브라이언 채플 저

이지혜 역

팀 켈러 추천

총정역출판사

일과 은혜

브라이언 채플 | 이지혜 역
생명의말씀사 | 296쪽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선교 현장이다.”

일의 존엄성, 돈, 성공, 악, 리더십, 워라밸... 일터의 그리스도인이 고민하는 문제에 관한 성경적 통찰!

취업을 위한 간절한 기도 부탁을 자주 받는다. 하나님 은혜로 오랜 준비 끝에 마침내 꿈꾸던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어김없이 수고와 고통을 헛바퀴처럼 연신 감내해야 하는 직장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이 들어온다.

그렇다. 우리는 일을 얻기 위한 은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은혜도 필요하다(원제: Grace at Work). 일은 인류의 타락 이전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 사람의 범죄로 땅이 저주받았고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에 불필요한 고통과 수고가 뒤따르기 시작했다(가시와 엉겅퀴).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사람의 죄는 그 선물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일하고, 하지 않아도 되었을 수고를 평생 하게 됐다.

사람이 하는 모든 소망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했다.

항상 은혜를 강조하며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은혜로 달려가도록 소리치는 목사이자 설교자 브라이언 채플은 그레이스 장로교회 원로 목사이자 커버넌트신학교 명예총장, 낙스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로 섬기고 있고, ‘은혜’에 관한 책을 다수 편찬했다(생명의말씀사에서 2017년 <은혜가 이끄는 삶>, 2002년 <성화의 은혜>가 출판됐다).

채플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예배, 기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그가 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미국 여러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재로 사용되기도 한다(은성, 2016).

2013년 팀 켈러의 <일과 영성(두란노, 2013)>이 나오기 전, 국내 기독교 서적 중 직장생활을 다룬 책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웨인 그루뎀, 벤저민 쿨, 윌터 스트릭랜드, 제임스 해밀턴, 폴 스티븐스, 세바스찬 트레거 그리고 조경민 목사 외 다수의 국내 저자들이 이 주제를 다룬 책을 냈다.

그런데도 브라이언 채플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직장생활에 필요하다는 진리를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 첫째, 채플은 전형적인 설교자다.

변증적 설득을 통해 돌고 돌아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저런 견해를 비교하며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학자가 아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의 피부에 와닿도록 간청하고 호소하는 설교자다.

변증적 설득을 통해 돌고 돌아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저런 견해를 비교하며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학자가 아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의 피부에 와닿도록 간청하고 호소하는 설교자다.

저자는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엄한지, 복음을 근거로 설명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쓸데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우리를 통해 큰일을 이루고 계신다. 저자 채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온유하고 담대하게 선포한다.

둘째, <일과 은혜>에서 채플은 단순히 직장생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돈, 성공, 악, 리더십, 워라밸 등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주님이 보시는 성공의 차이를 말하고, 돈이나 성공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한다. 채플은 돈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 안에서 벌고 사용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 은혜를 따내기 위한 수단인 아님을 분명히 알고, 조건 없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성공 즉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 재능을 충성스럽게 사용하기를 추구하라고 권면한다.

특히 워라밸에 관해 저자는 무엇을 하는 가보다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님을 위한 일과 나를 위한 일을 억지로 구분하여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삶은 무엇을 얼마나 하는가와 상관 없이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급하여 쉼을 누리지 못하거나, 쉬고 싶은 마음과 나태함을 혼동하여 게으른 자로 살 수도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워라밸을 누리는 비결이다.

셋째, 채플은 직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들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

지도자에 대한 의무와 지도자로서의 의무를 설명하고, 합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한다.

저자는 또한 모든 은혜로운 사역의 본원으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손꼽는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용기 있고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사랑을 보이셨는지 말해주면서, 각자의 일터에서 그와 같은 인품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내는



워라밸? ©Unsplash

자들 아닌가?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받은 은혜로 충만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일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 일하며, 그 은혜를 흐르게 하기 위해 일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같은 일터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브라이언 채플의 <일과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모든 그리스도인 직장인에게 은혜 안에서 일하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천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호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론 행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호안사의 말이니라

These are the things you are to do:
Speak the truth to each other, and
render true and sound judgment
in your courts; do not plot evil against
each other, and do not love to swear
falsely. I hate all this," declares
the Lord.

ZECHARIAH 8:16, 17

Solomon University 가을 음악회

Scholarship Fundraising Music Concert

Wi Young Oh Tenor	SangKeun Chang Tenor	Won Hyeon Choi Tenor	Clara Kim Shin Artpop Soprano	Young Joo Lee Soprano	YooJin Yang Soprano
Kyungmi Yoon Piano	Esther Baek, Ph.D. President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33th Annual The Solomon University Scholarship Fundraising Music Concert를 개최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20회에 걸쳐 매해 열렸던 모금 음악회를 Covid-19으로 인해 3년동안 하지 못하는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다시금 여는 가을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신학대학(원)에서는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여 배출해 왔으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께서 이름도 빛도 없이 각 지역과 오지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소명(Calling)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천한 신학생들을 돕기 위한 기금마련 음악회입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풍성한 가을밤을 수놓을 출연진 성악가들의 오페라 아리아의 감동적인 선을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그램 책자광고와 Music Ticket 구매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9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 미주평안교회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 후원 및 광고 문의 : Tel: (323) 708-9191 / (213) 381-7755
- PAY TO THE ORDER: Solomon University | SIMC Tax Exmotion (세금공제)
- Ticket(티켓구매문의) \$30
Solomon University 323-708-9191
조선일보 213-459-6800 크리스천 비전 323-934-7500
기독교일보 213-739-0403 기독교서적 센터 323-733-8850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D.P.' 시즌2 (2)

드라마 'D.P.', 병영문화 선진화를 위한 변화 계기로

국민 생존과 그리스도인들 평안 위해 군 병영문화 개선 필요해 병력규모 급감 사태 곧 현실화 한 사람 가치 높이는 방향 개혁

◆국방력 제고: 무기체계 발전만으로 이룩할 수 없는 국방력 유지와 강화

근래 대한민국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국군의 실질적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 당연히 전쟁 역사가 최우선 목표이자 존재 의미일 것이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래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우리 군의 주적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 공산당의 지역 패권을 향한 야욕 때문에 북한 및 대만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전쟁 위협 아래 놓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최우선적 존재의미는 당연하게도 전쟁 역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쟁 역지'라는 목표는 심히 모호하다. 우리가 처한 국제안보 현실 속에서 전쟁 역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고심하고 살피지 않는다면, 전쟁 역지라는 궁극적 목적은 현실화될 수 없다. 그렇다면 전쟁 역지를 위해 우리 군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미국을 중심에 둔 아시아 태평양 자유민주주의 진영 군사동맹의 일익으로서, 동아시아 지역 주둔 미군, 일본 자위대, 그리고 대만군과 함께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영역 확대 야욕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사시 실전으로 돌입해 적을 타격할 준비를 갖추는 동시에, 애초 실전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규모의 국방력을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역량은 이 책임을 자력으로 담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근래 한국 방위산업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선진화된 군대로 자리매김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자, 자주포, 순항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생산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런 무기체계들이 과연 한국의 주적 혹은 가상 적국의 무기체계를 압도할 만한 성능을 갖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불운하게도, 현 상황에서 우리 군의 맨파워에 대한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징병제에 의존하는 병력자원 규모는 향후 10-15년 새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군 간부 지원자 수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은 의사, 변호사, 해외 엔지니어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길을 선택하지, 결국 군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군의 인력 규모는 급감하고 있고 그 인력의 역량 또한 저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력 제고란 요원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군 지도부는 국방에 대한 구시대적 인식과 전투 교리를 가지고 군의 규모와 역량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과거처럼 60만 이상의 상비군 병력을 가지고 병사들을 갈아넣어 전쟁 역지력을 갖추는 방식은 곧 강제적으로 무력화될 것이다.

향후 10년 내 젊은 여성들까지 총동원해 징집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병력규모와 운용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군 운용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규모에 의지하는 우리 군의 국방력 저하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국방력 약화: 병력규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군 운용방침과 병영문화 선진화의 필요성

드라마 'D.P.' 시즌 1과 2에 묘사된 군대 내 병영생활의 고질적 부조리, 그리고 수십 년째 이것을 은폐하고 무마하는 데만 급급한 군 수뇌부의 일관되게 무책임한 행태는 우리 군의 암울한 인력 동향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는 일본의 군국주의 군대로부터 물려받은 구시대적 병영 전통들이 군을 유지하고 운용하는 데 주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때는 아예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과 선진화된 시민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군대도 내부 문화를 개혁할 당위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전반에 개인화, 인권, 다양성을 중시하는 세대가 일반화된 현재,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동원할 수 있는 현역 병력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구시대적인 병영문화와 군 운용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군이 자멸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미군을 비롯한 선진국 군을 모범 삼아, 변화되는 사회의 세태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병영문화와 군 운용방침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만이 우리 군의 맨파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명령을 준수하는 엄정한 군기는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관의 부당한 권위 강요나 악의적 인권침해 행태까지 엄정한 군기의 범주에 집어넣는 구시대적 발상은 철저히 뜯어고쳐야 한다. 우리 군은 이런 전통이 유독 강했는데, 여기에는 일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연원이 존재한다.

20세기 초 제국주의 열강의 말석을 차지하던 시절 일본군에는 하급자가 군 내부 악습에도 철저히 순복해야 실전에 능한 군을 양성할 수 있다는 일본군 특유의 근성을 강조하는 병영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 일본군 장교 출신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창군된 초기 우리 국군 역시 이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겉보기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명하복이 이루어지니 군기가 엄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는 않았다. 겉보기에 그토록 엄정해 보이던



한국군의 병영생활 속 부조리와 폭력, 가혹행위를 주제로 삼은 넷플릭스 TV 시리즈 'D.P.' 시즌2. © 넷플릭스

일본군은 당시로서 후진 군대였던 중국군을 향해서만 맹위를 떨쳤을 뿐, 정작 일본군보다 훨씬 느슨해 보이는 병영문화를 가진 미군에게는 무참하게 패배했다.

물론 일본군의 패배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경제력과 산업 역량의 압도적 열세에 기인한 것이 사실이지만, 미군이 일본군보다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병사 개개인의 인명과 인권을 중시하는 군 운용방침을 고수한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일본군 패배의 요인이었다.

미군이라 해서 처음부터 선진 군대는 아니었다. 1917년 미군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당시만 해도, 미군의 군사력 수준은 치열한 참호전을 겪었던 프랑스나 영국군에 비하면 처참한 수준이었다. 훈련도 장비도 싸울 의지와 당위성도 부족했으나, 막대한 병력자원과 물자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유지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열강의 지위를 차지한 다음 제2차 세계대전에서 다시 수많은 병력을 잃고 무수한 시형작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미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력을 갖춘 정예군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즉 실전에 능한 정예군이란 상당한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고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은 이후에야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며, 이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병사들이 최선의 몸상태와 의지를 가지고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병영 문화를 유지해야 한다.

미군도 이런 군을 보유하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렀으며, 게다가 흑인과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인종차별 전통 때문에 이후에도 수많은 내용을 겪었다.

우리 군이 진정 정예군으로 거듭하려면 당연히 유희가 낭자한 실전 경험과 함께, 그 가운데서 우리 젊은이들이 힘써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군 운용방침과 병영문화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이 대규모 실전을 경험할 길은 요원하다. 만일 우리 군이 대규모

실전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아마 대한민국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전면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당연히 이런 비극적 상황이 도래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최우선적으로 이런 전면전을 억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정예화를 위한 차선책은 동맹국들과 최대한 빈번하게 연합훈련을 수행하고, 군 내부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게 운용방침을 개선하며 악습이 만연한 병영문화를 혁파하는 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드라마 'D.P.'의 메시지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간혹 군 내부에 산발적으로 장병들 간의 범죤나 인권유린이 일어날 수는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군대인 미군에도 어이없는 사건들이 간혹 발생한다. 사회에 범죤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군 내부도 아무 문제없이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 군 수뇌부가 진정으로 전쟁 수행능력과 전쟁 역지력을 갖춘 군대를 양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병영에 산적한 구시대적 악습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안간힘을 써야 한다. 특히 몇 년 지나지 않아 병력규모 급감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므로,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지금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고 군 운용방침을 개혁해야 한다.

이런 악습은 단순히 군복무를 수행중인 인원들의 고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이 필요한 맨파워를 확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저해하여 군 병력 전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데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D.P.'가 보여주는 군 내부의 구시대적 악습과 뒤떨어진 군 운용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경제규모와 병력규모 축소가 가시화된 우리 한국의 어두운 앞날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군의 병사 인권에 관한 인식의 제고, 그리고 병영문화 선진화를 위한 변화 의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 확신한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제 2 차
성경쉽게읽기 특강

성경쉽게 읽기선교회에서 **성경 일천번이상 통독**하신 데이비드 리목사가 첫 특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제2차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읽기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 시: 2023년 9월 9일, 16일, 23일, 30일, 매주(토) 오전 11시(4주간)
- 장 소: Kairos University Campus (얼바인 분교 2층) 2681 Walnut Ave. Tustin, CA 92780
- 등록인원: 30명 선착순(인원이 차면 다음 기회에)
- 등록비: \$50 (교재 및 Fellowship), (수료하신 분은 무료청강)
- 등록방법: 949-304-8912 이메일: bible100plus@gmail.com
- 강 사: 데이비드 리 목사
- 주 최: 성경쉽게읽기선교회 (본 선교회는 성경읽기에 관하여만 가르칩니다)

청빙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라는 사명으로 1993년에 창립되어서 30주년을 맞이하는 메릴랜드 빌립보교회(초교파)에서 유/초등부(K-5학년)를 담당하실 **사역자를(Full time) 청빙**합니다.

- 1. 사역 범위**
 - 150 여명에 이르는 K부터 5학년까지의 유/초등부 예배 인도 및 설교(영어)
 - 주일학교 교사 교육 및 훈련
 - 주일학교 행사 및 activity 인도
- 2. 지원 자격**
 - 1) 1년 혹은 그 이상의 유/초등부 사역 경험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혹은 아동교육 관련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 3. 제출 서류**
 - 1) 이력서
 - 2) 자기소개 및 신앙간증문 (소명, 목회비전, 사역경력 등 포함)
 - 3) 추천서 2부 (각 추천인 연락처 기재)
- 4. 접수 및 방법**
 - 1)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2) 문의 및 서류제출: 청빙 담당자 : 박일웅 (diwpark@gmail.com)
- 5. 참조**

빌립보 교회 홈페이지 (www.churchofphilippi.org)

빌립보 교회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각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100%
Made in
US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Outlet Free



SCAN ME



Lic#854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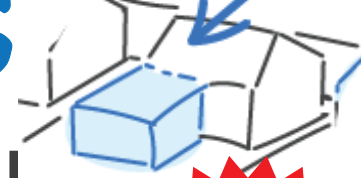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ADU 전문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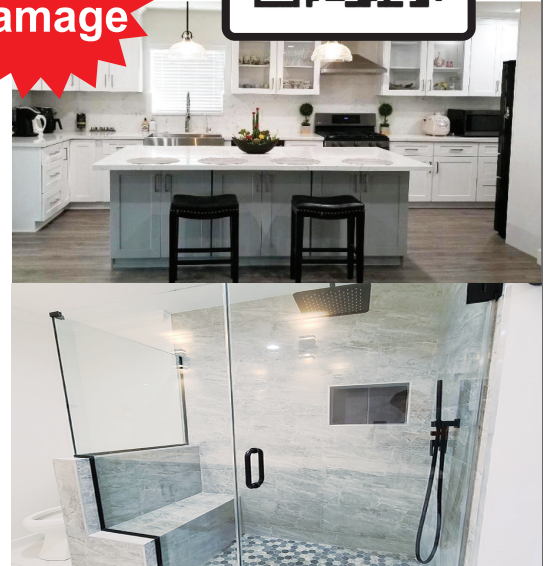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K-Urban Builders In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